

	한국사	<b>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⑩</b> 고려-5 몽골의 간섭과 정치변화	학번	
	임종일 T		이름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13c 초, 칭기즈 칸이 몽골을 통합하고, 세력을 확대함  
 -1231, 몽골사신이 귀국길에 살해된 사건을 명분으로 고려를 침입

-이때 고려의 지배자 : 최우  
 -몽골과 강화를 맺고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  
 -**처인성전투, 충주성전투** 등에서 일반 백성과 하층민까지 몽골군에 대항  
 고려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수도를 개경으로 환도 (1270)  
 \*개경환도를 반대한 **삼별초\*\***는  
 [강화도→진도→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항전.  
 but,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진압 (1273)

★몽골의 간섭

고려왕과 원의 공주와 혼인 - '부마국'이 됨.  
 중앙) **관제격하** (황실체제→제후국체제)  
 조,종→왕 / 폐하→전하 / 2성6부→첨의부, 4사  
 +관리 '다루가치'파견, **정동행성** 설치 (征東)  
 +쌍성총관부, 동녕부, 탐라총관부 설치  
 +금, 은, 인삼, 공녀, 환관 요구

이때 지배층 : '권문세족'  
 도평의사사 장악, 농장과 노비의 소유 : "산천을 경계로 한다."  
 일반 민 : "입추지지도 없다."

★공민왕의 개혁추진 ★★★

배경) 원의 쇠퇴  
 공민왕, 반원 자주정책 추진

- 1) 관제복구
- 2) 친원세력 숙청 (기철), 원 연호 폐지
- 3) 몽골식 풍습 폐지 (변발, 몽골식 의복)
- 3)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쌍성총관부 탈환
- 4) 신돈의 등용 - 전민변정도감 설치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로 삼은 양민을 되돌려 놓으려 함.  
 for, 권문세족 경제적 기반약화, 국가재정의 확충, 국가통치질서 안정
- 5) 성균관, 과거제 정비, 신진사대부 등용  
 but, 권문세족의 반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따른 혼란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  
 신돈이 제거 & 공민왕이 시해 - 개혁중단

★신진 사대부의 성장

안향이 원에서 들여옴.  
 충선왕, 원에세운 [만권당]에서 이제현이 원의 학자와 교류하며 이해 심화  
 공민왕, 성균관 재정비,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교육

고려후기, 원의영향을 받은 성리학은 철학적 측면보다,  
 현실 실천 윤리 측면을 강조.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토지문제, 불교의 폐단 등을 비판

cf. 고려시대 북방민족의 침입

10c 거란 (요) 침입  
 1차, (            ), (            )  
 2차, (            )  
 3차, (            ), (            )  
 이후, 나성, 천리장성 축조  
 & 송, 고려, 거란 사이의 세력균형

12c 여진 (금) 침입  
 윤관, (            ), (            )  
 (            ), 금의 사대관계 요구 수용

13c 몽골 (원) 침입

cf. 神風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전국에 방을 붙여 알렸다. " 근래에 기강이 크게 무너져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풍습이 되었으며, ..... 사람들이 대대로 업으로 이어온 토지를 권세 있는 집에서 거의 다 빼앗아 차지하였다. 일부는 이미 판결이 났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일부는 백성을 노예로 만들기도 하였다. .... 이제 도감을 설치하여 바로잡고자 하여 개경은 15일을 기한으로 하여, 여러 도는 40일을 기한으로 하여 스스로 잘못을 알고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을 넘겨 일이 발각되는 자는 죄를 조사하여 다스릴 것이며 망령되게 소송하는 자는 도리어 처벌하겠다." 명령이 나가자 권세가 중에 토지와 백성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으며, 전국에서 기뻐하였다. - " 고려사 " -

성리학 (=주자학)

: [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 ]  
 남송 시대, 주희가 집대성